

2024년 5월 중국 무역 동향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2024. 6. 19(수)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◎ 요약

○ (수출) 5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7.6% 증가

-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8개 품목의 1~5월 누계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
- 수출증감률은 시장예측치(4.8%)를 상회했으며 올해 1월 이후 수출액 최대
- 반도체, 자동차, 가전제품 등이 수출성장세 견인

○ (수입) 5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.8% 증가

-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6개 품목의 1~5월 누계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
- 수입증감률은 시장예측치(4.0%)를 하회했으며 수입액은 전월 대비 감소
- 5월 무역수지는 약 826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대비 26.8% 증가

1 수출입 동향

- 5월 수출액은 7.6% 증가한 3,023억 5천만 달러(한화 약 415조 원), 수입액은 1.8% 증가한 2,197억 3천만 달러(약 302조 원), 무역수지는 약 826억 2천만 달러(약 114조 원) 흑자로 전년 동월대비 26.8% 증가
- 전년 동월대비 2개월 연속 수출, 수입 증가세 지속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'24. 4월	'24. 5월	'24. 1~5월
수 출	33,160 (28.0)	35,444 (6.9)	33,790 (△4.7)	2,924.5 (1.5)	3,023.5 (7.6)	14,007.6 (2.7)
수 입	26,794 (29.7)	27,065 (1.0)	25,569 (△5.5)	2,201.0 (8.4)	2,197.3 (1.8)	10,635.6 (2.9)
수 지	6,366	8,379	8,221	723.5	826.2	3,372.1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5월 수출입총액은 전년 동월대비 5.1% 증가한 5,220억 8천만 달러 (약 717조 원)를 기록하였으며,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수출입총액·수출액·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.8%, 2.7%, 2.9% 증가세를 보임
 - (수출)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8개 품목의 1~5월 누계 수출액이 증가
 - 5월 수출액은 3,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금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실적 달성.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전월 대비 약 100억 달러 증가
 - 1분기에 이어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IT 품목 수출 강세 지속
 - (수입)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6개 품목의 1~5월 누계 수입액이 증가
 - 반도체, 컴퓨터 및 주변기기, 철광석, 동재 등 품목이 수입 성장세 견인
 - 중국의 10대 무역대상국 가운데 對한국, 아프리카 1~5월 누계수입액 증가율이 두 자릿수 기록
- 최근 중국 전략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, 서방국가 등의 탈중국화 리스크는 향후 중국 수출을 위협하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기간 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
 - 미·중 공급망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멕시코,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우회 수출 방안 마련
(*참고. 2023년 멕시코는 16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미국 최대 수입국 등극)
 - 로이터(Reuters)는 서방국의 관세 부과가 단기간 내 중국 수출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 높은 마진 및 수익 창출을 위해 출하 속도를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 관	주 요 내 용
중국	 해관총서 (海关总署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~5월 기준, ASEAN, EU, 미국에 대한 중국 무역 흑자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28.1%, 1.5%, 7.2% 증가(*위안화 기준). 동기간 한국에 대한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약 79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약 15억 위안의 무역수지 흑자와 큰 격차 - 동기간 민영기업(비중 54.7%)의 수출입액은 11.5% 증가했으며 국영기업(15.9%), 외국인 투자기업(29.1%)의 수출입액은 각각 1.9% 증가, △0.1% 감소 - 1~5월 중국의 철광석(수량 증감률 7.0%), 석탄(12.6%), 천연가스(17.4%), 정제유(20.1%) 등 주요 원자재 수입 수량 증가
	 동방증권 (东方证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~5월 중국의 가전제품, 가구, 전구류(램프), 음향·영상 장비 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4%, 16.6%, 4.6%, 5.6% 증가. 전자기기 관련 중간재인 반도체 및 집적회로, LCD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은 동기간 각각 21.2%, 11.4% 증가 - 올해 중국의 對아세안, 중남미 가전제품 수출이 급 성장세를 보인 배경에는 대미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국 가전제품 기업의 우회 수출증가 등이 반영됨 - 중국의 우회 수출 등에 힘입어 최근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TV 수입국으로, 베트남은 미국의 최대 청소기 수입국으로 급부상
	 차이신연구원 (财信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월에도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 예상, 상반기 수출증감률은 3~4% 수준 전망. 대외무역 우방국 확대 및 수출 상품 구조 고도화가 무역 강세 뒷받침 - 수출가격 인하에 따른 영향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며, 미국 대선 임박에 따른 미·중 갈등, 글로벌 지정학 마찰 등은 무역 불확실성을 가중할 수 있음 -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 및 對중국 의존도 감축을 위해 전략제품(전기차, 리튬 배터리, 태양광 전지, 핵심 광물, 반도체 등) 관세 상향 조정 결정
해외	 로이터 (Reut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두 달간 중국 제조기업은 해외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찾는 등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. 하이테크 제품 위주 수출 강세, 수출 물량 증가 - 향후 중국 제조 대기업의 경쟁적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, 서방의 관세 부과가 단기간 내 중국 수출을 약화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 - 5월 수입 증감률(1.8%)은 전월(8.4%)보다 둔화하여 내수의 취약성이 부각되었으나, 정부 재정 부양책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	 SCM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의 5월 수출증가는 동남아 수요 급증, 전년도 낮은 기저 등의 영향이 반영됨.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4월 대비 약 100억 달러 확대 - 5월 중국의 對아세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.5% 증가하여 2023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월간 증가율 기록. 5월 대미 수출증가율은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- 정부 재정 지원(5월 국채 발행 규모는 7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증)은 부동산 등 건설업계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여 원자재 등 수입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	 WSJ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월 수출증감률(7.6%)은 시장예상치(4.8%)를 상회하였고, 수입증감률(1.8%)은 시장예상치(4.0%)를 하회함 - 수입이 전월 대비 소폭 둔화한 요인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 및 전년도 높은 기저 등의 영향이 반영됨 - 최근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 강화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항공기·우주선 관련 부품 및 초고분자 폴리메틸렌 섬유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. 향후 후속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 - 올해 중국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낙관 전망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(2024.06.11)

3 5월 국가(지역) 및 품목별 동향

- (국가별 동향) 10대 수출대상국(지역) 가운데 ASEAN(증감률 9.7%), 중남미(10.2%), 미국(0.2%), 베트남(22.3%), 인도(1.0%)로의 5월 누계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, EU(△3.9%), 아프리카(△2.1%), 한국(△5.3%), 일본(△7.7%)으로의 수출액은 감소
- 수입의 경우, ASEAN(증감률 3.5%), 중남미(4.5%), 한국(12.9%), 아프리카(12.2%), 러시아(6.9%)로부터의 5월 누계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, EU(△5.6%), 미국(△5.8%), 일본(△2.5%), 호주(△4.2%)로부터의 수입액은 감소

< 5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(5월)	1~5월 누계증감률	국가별	금액(5월)	1~5월 누계증감률
1	*ASEAN	508	9.7	*ASEAN	330	3.5
2	*EU	442	△3.9	*EU	229	△5.6
3	미국	440	0.2	*중남미	209	4.5
4	*중남미	253	10.2	중국 대만	177	8.1
5	중국 홍콩	225	10.8	한국	152	12.9
6	*아프리카	146	△2.1	미국	132	△5.8
7	베트남	142	22.3	일본	126	△2.5
8	한국	128	△5.3	호주	124	△4.2
9	일본	123	△7.7	*아프리카	107	12.2
10	인도	99	1.0	러시아	107	6.9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*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상위 수출 품목 1~3위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5.6%), 의류 및 부자재(4.4%), 방직실 및 직물(4.3%)의 1~5월 누계수출액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6.1%, 0.2%, 2.6% 증가
- 자동차, 가전제품 누계 수출 수량은 각각 26.8%, 24.6% 급증. 휴대폰, 강재 누계 수출 수량은 각각 4.7%, 24.7% 증가했으나 금액은 수출단가 하락 영향으로 각각 △5.9%, △11.5% 감소

-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14.1%)는 1~5월 누계기준 전년 동기대비 수량, 금액 각각 14.9%, 13.1% 증가
- 수입 2위 원유(비중 13.5%)는 1~5월 누계기준 수량, 금액 각각 △0.4% 감소, 2.7% 증가. 3위 철광석 및 정광(4.9%)은 수량, 금액 각각 7.0%, 11.9% 증가
- 5위 컴퓨터 및 주변기기(2.9%)의 누계 수입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54.3% 급증

< 5월 중국의 TOP10 수출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(5월)	1~5월 누계증감률	금액 (5월)	1~5월 누계증감률	비중 (5월)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68	6.1	5.6
2	의류 및 부자재	-	-	132	0.2	4.4
3	방직실 및 직물	-	-	129	2.6	4.3
4	반도체 및 집적회로	253억 개	10.5	126	21.2	4.2
5	자동차(새시 포함)	57만 대	26.8	105	20.1	3.5
6	플라스틱제품	-	-	93	8.5	3.1
7	가전제품	41,021만 대	24.6	90	14.0	3.0
8	휴대폰	6,146만 대	4.7	89	△5.9	3.0
9	자동차부품	-	-	78	4.9	2.6
10	강재	963만 톤	24.7	73	△11.5	2.4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< 5월 중국의 TOP10 수입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(5월)	1~5월 누계증감률	금액 (5월)	1~5월 누계증감률	비중 (5월)
1	반도체 및 집적회로	457억 개	14.9	309	13.1	14.1
2	원유	4,697만 톤	△0.4	297	2.7	13.5
3	철광석 및 정광	10,203만 톤	7.0	108	11.9	4.9
4	식량(곡류)	1,584만 톤	5.3	67	△16.9	3.1
5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64	54.3	2.9
6	천연가스	1,133만 톤	17.4	54	△0.7	2.5
7	동광석 및 정광	226만 톤	2.7	53	3.1	2.4
8	미단조 동 및 동재	51만 톤	8.8	51	11.6	2.3
9	대두	1,022만 톤	△5.4	50	△22.4	2.3
10	의약재 및 약품	37,513톤	0.8	43	△9.9	2.0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5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49.5로 3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(50)을 하회하였고, 생산자물가지수(PPI)는 전년 동월대비 $\Delta 1.4\%$ 하락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0.3% 상승
 - PMI 지표 중 신규 주문지수, 원자재 재고지수 등이 기준선(50)을 하회하면서 제조업 경기 수축
 - 5월 PPI($\Delta 1.4\%$)는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(20개월 연속), 석탄 채굴업,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원자재 등의 공장 출하 가격 하락 영향 반영
 - 5월 CPI(0.3%)는 4개월째 1%대 미만의 플러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, 세부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신선식품 물가 2.3% , 교통수단 연료 6.3% , 여행업 4.2% 상승, 식용유 $\Delta 5.1\%$, 주류 $\Delta 1.0\%$, 통신장비 $\Delta 2.5\%$ 하락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'24. 4월	'24. 5월	
경제성장률(%)	2.2	8.4	3.0	5.2	-	-	
소매판매 증감률(%)	$\Delta 3.9$	12.5	$\Delta 0.2$	7.2	2.3	-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2.9	4.9	5.1	3.0	4.2	-	
산업생산 증감률(%)	2.4	10.4	3.4	4.6	6.7	-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(%)	51.9	50.3	47.0	49.0	50.4	49.5	
소비자 물가지수 CPI(%)	2.5	0.9	2.0	0.2	0.3	0.3	
생산자 물가지수 PPI(%)	$\Delta 1.8$	8.1	4.1	$\Delta 3.0$	$\Delta 2.5$	$\Delta 1.4$	
실업률(기말, %)	5.2	5.1	5.5	5.2	6.1	-	
외국인직접투자(누계, 억 \$, %)	1,444 (4.5)	1,735 (20.2)	1,891 (8.0)	1,587 ($\Delta 8.0$)	-	-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2,165	32,502	31,277	32,380	32,008	32,320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8974	6.4512	6.7208	7.0423	7.1007	-	
한국의 對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출	1,326 ($\Delta 2.7$)	1,629 (22.9)	1,558 ($\Delta 4.4$)	1,248 ($\Delta 19.9$)	104.6 (9.9)	113.8 (7.6)
	수입	1,089 (1.5)	1,386 (27.3)	1,546 (11.5)	1,429 ($\Delta 7.6$)	124.1 (5.3)	122.8 ($\Delta 0.8$)
	수지	237	243	12	$\Delta 180$	$\Delta 19.5$	$\Delta 9.0$

출처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
주: 5월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임